맑은 눈동자를 가득 채운 삶에 대한 의지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박만원 교수
전문진료분야.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동맥, 대동맥 및 경동맥질환, 구조적 심장질환, 고혈압

나이 51세, 키 139cm, 몸무게 40kg, 맥박은 169회로 불규칙했고, 자그마한 체구에 깡마른 얼굴은 황달로 인해 병색이 완연했다. 외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 했다. 2014년 10월 그 분을 처음 만난 순간이다. 입원 후 시행한 피검사에서 간수치, 황달수치가 모두 높았고, 심부전으로 인해 양쪽 폐에는 물이 차있었으며, 심장초음파에서 수술이 필요한 중증 승모판막 협착 소견을 보였다. 심부전 치료가 진행되면서 환자의 상태는 조금씩 양호해져 2주 후에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러나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협착이 심한 승모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갈아 끼우는 개흉수술이 불가피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마침 환자의 어머니가 우리 병원 흉부외과 권종범 교수님께 대동맥 판막 수술을 받은 분이어서 환자 역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할 줄 알았으나, 보호자와는 달리 환자 본인은 체력이 너무 약하고 당뇨가 있어서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수술을 망설였다.

길고 긴 1년간의 '외래 설득 작업'

환자는 퇴원 후 2달에 한 번씩 외래를 찾았다. 증상이 심할 때는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 이 시기만 지나면 반드시 입원해서 수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약으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은 괜찮으니 조금 더 있다가 수술을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환자는 완치를 위해선 수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약한 체력 때문에 수술 후 못 깨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보호자들도 이런 환자의 태도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나 역시 바쁜 외래시간 중에 달래기도 하고, 얼마 못가서 죽는다고 으름장을 놓아보기도 하고, 포기했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도 하면서, 아무런 진전 없이 반복되는 상황에 '내가 뭐하는 짓인가?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지' '그래, 본인이 정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다 수술 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만 욕 먹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기나긴 구애(?) 끝에 2015년 8월 환자는 드디어 우리 병원 흉부외과에서 승모판 치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잘 회복되어 퇴원했다. 수술 후 외래에서 환자를 만날 때 마다 환자는 건강해진 본인의 모습에 진작 수술을 할 걸 그랬다며 웃는다. 그리고 나갈 때는 꼭 두 번 연거푸 인사를 하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외래 진료실을 나선다. 정작 수술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환자를 보다보면 우리 의사들은 매번 이런 결정의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을 맞게 되고, 그때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 만큼 했으면 됐지…….' 지금 와서 그 순간을 돌이켜 보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자의 불안한 눈동자에서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환하게 웃으며 외래 진료실 문을 나서는 환자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뿌듯해진다.